메시, 발롱도르 8회 수상 위업 … 차기 후보 예측도

▲ 8번째 발롱도로를 수상한 리오넬 메시가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mundoalbiceleste.com

발롱도르 8회 수상의 위업을 달성한 리오넬 메시가 차기 발롱도르를 수상할 후계자를 예상했다.

지난 31일 '인터풋볼'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자는 모두의 예상대로 메시였다. 2022-23시즌은 메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시는 지난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 통한을 떨쳐냈다. 메시는 월드컵 우승으로 모든 메이저 대회 석권과 동시에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도 세웠다.

8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한 메시는 "이 상은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주어진 것이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다. 내게 남은 것은 월드컵뿐이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메시는 자신의 뒤을 차기 발롱도르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엘링 홀란드와 킬리안 음바페는 언젠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치열한 경쟁 끝에 아쉽게 2위에 머문 홀란드를 향해 "그 역시도 수상할 자격이 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PL)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과 동시에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 상은 오늘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당신이 이 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창단 62년 만에 월드시리즈 첫 우승

▲ 브루스 보치 텍사스 감독(가운데)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가 1961년 팀 창단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텍사스는 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애리조나를 5-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포스트시즌 내내 맹타를 휘두른 유격수 시거가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LA 다저스 소속이던 2020년을 포함해 생애 2번째 월드시리즈 MVP다. 이제까지 2회 이상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한 선수는 MLB 역사를 통틀어 샌디 쿠팩스, 밥 깁슨, 레지 잭슨 등 3명뿐이다. 양대 리그에서 각각 월드시리즈 MVP를 경험한 건 시거가 처음이다.

텍사스는 2010년대 들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의 강자로 올라섰지만,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 후로도 한동안 강팀으로 군림하던 텍사스는 2017년을 시작으로 몰락했다. 지난해까지 6시즌 연속 승률 5할 미만을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은 3할대 승률에 머물렀다.

그러나 텍사스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브루스 보치 텍사스 감독은 MLB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1명으로 우뚝 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010·2012·2014년 3차례 우승을 이끌었던 보치 감독은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조 토레 등과 함께 감독 최다 우승 기록 공동 3위에 올랐다.

"하든,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 합의"

▲ 제임스 하든. 사진=bleacherreport.com

미국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가드 제임스 하든(196㎝)이 LA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는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이날 "필라델피아가 LA 클리퍼스와 하든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고 보도했다.

하든은 NBA 올스타에 10차례 선정되고, 2018년에는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리그 정상급 가드다. 그는 2022년 2월 브루클린 네츠에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됐으며 2022-2023시즌에는 정규리그 58경기에 나와 21점, 10.7어시스트, 6.1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하든은 2022-2023시즌이 끝난 뒤인 올해 6월 필라델피아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2023-2024시즌 개막 후에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하든은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계약 조건을 양보해 팀을 위해 희생했지만 2023-2024시즌을 앞두고 장기 재계약을 꺼리는 모리 사장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LA 클리퍼스는 하든 영입으로 기존 커와이 레너드, 폴 조지, 러셀 웨스트브룩과 함께 '슈퍼 팀'을 결성하게 된다. 하든은 웨스트브룩과는 오클라호마시티 선더, 휴스턴에서 총 4시즌 함께 뛴 경력이 있다.

다만 아직 LA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에 내주는 조건도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트레이드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149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1	2	6		9				
		5	7				1	3
			6			9		
4				8		7		9
3	5							1
			2	7		4		
	6	3	8				9	
		8				5	7	
				4	6		2	

낱말퍼즐 정답

1 송	년	2 회	■	■	■	3 밥	■
판	■	4 피	5 디	■	6 분	풀	7 이
■	■	■	8 자	투	리	■	산
9 입	■	10 관	인	■	11 수	궁	가
12 주	13 소	록	■	14 철	거	■	족
■	탐	■	15 잡	부	■	■	■
16 푸	대	접	■	17 지	18 정	■	19 수
■	실	■	■	■	20 원	리	금